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중구름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올림픽 대표팀 새 사령탑 박성화 감독

축구협 “지도력·경험 등 최고 책임자” 만장일치 결정 홍명보는 수석 코치로...이달 17일께 대표선수 소집

올림픽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박성화(52)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밤 베이컨 감독의 사퇴로 공석이 된 올림픽대표팀 선임 감독에 박성화 감독을 선임하고 내년 8월 베이징올림픽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영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림픽대표팀 감독 후보 4~5명을 놓고 논의한 결과 박성화 감독이 올림픽대표팀을 지휘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성화 감독은 지도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현 올림픽대표팀

연령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포백 수비 등 올림픽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술위는 당초 박성화 감독을 적임자로 선정해 접촉했으나 본인이 고사하자 홍명보 코치를 놓고 다시 논의했지만 홍 코치는 아시아컵축구 한 일전 때 벤치로 지내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결국 박성화 감독이 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박성화 감독은 “한국 축구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 아이파크 감독직을 17일 만에 내놓게 된 박성화 감독은 “부산 구단과 팬들에게 백번 사죄해야 한다. 올림픽대표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급박한 상황 때문에 올림픽대표팀을 맡게 된 것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성화 감독은 감독직 후보로 함께 거론됐던 홍명보 코치에게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줄 것을 제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명보 코치는 따라서 올림픽대표팀 수석코치로 잔류하게 됐다. 압신 고트비 코치, 코사 끌기며 코치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박 감독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

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에 앞서 17일께 대표 선수들을 소집해 첫 탐금질을 시작한다.

박성화 감독은 “최종예선을 반드시 통과하는 게 1차 목표”라며 “20세이하 청소년대표 선수들을 5명쯤 발탁하고 베이컨 감독의 기존 전술에 변화를 줘 공격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를 나온 박성화 감독은 1974~1985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1983~1987년 함평부야, 포함제철에서 뛰면서 1983년 K-리그 초대 MVP에 올랐다.

1988년부터 지도자로 입문한 그는 프로축구 현대, 유공 코치를 거쳐 1993~1994년 유공 감독, 1995~2000년 포함 감독을 맡았고, 2001년 11월부터 20세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아 2003년과 2005년 U-20 세계청소년대회를 치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성화 감독 프로필

출생 1955.7

학력 동래고, 고려대 졸업

주요경력

1974~85	국가대표 선수
1983~	함평부야 프로축구 선수
1983~	포함제철 프로축구 선수
1991	현대 프로축구 코치
1992	유공 프로축구단 코치
1993~94	유공 프로축구단 감독
1995.11	포함 아톰즈 감독
1995.11~2000.7	포함 스틸러스 감독
2000~2001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2001.11~	청소년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003.2~2004.6	국가대표팀 수석코치
2004.4~2004.6	국가대표팀 감독대행
2007.7	부산 아이파크 감독
2007.8.3	올림픽대표팀 감독

주요경력

1993	프로축구 MVP
1993	프로축구 베스트11
1994	프로축구 베스트11
1996	프로축구 모범선수
1996	아시아축구연맹 2월의 감독상
1998	아시아축구연맹 4월의 감독상
2004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우승

한국프로축구협회

‘탱크’ 최경주 스타트 무난

WGC 브리지스톤 1R, 선두와 4타차 공동 21위

‘호랑이 잡는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135만 달러의 우승 상금이 걸린 월드골프프렌드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에서 상위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최경주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45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21위를 달렸다.

순위는 다소 처했지만 3언더파 67타를 때려 공동 선두에 오른 헨터 메이헌(미국)과 폴 케이시(잉글랜드),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등에 4타 밖에 뒤지지 않아 남은 사흘 동안 충분히 선두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최경주는 특히 평균 비거리 301야드의 장

타를 터뜨리면서도 페어웨이 안착률이 79%나 됐고, 그린 적중률은 출전 선수 83명 가운데 가장 높은 72.2%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은 탄도 높은 정확한 샷이 위력을 발휘했으나 문제는 무더진 퍼팅 감각이었다.

정규 타수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홀에서 평균 1.923개까지 치솟은 퍼팅 탓에 최경주는 버디 찬스를 4차례 밖에 살리지 못했고 보기 3개와 더블보기 1개를 감수해야 했다.

이 대회에서 5차례나 우승컵을 차지해 ‘텃밭’으로 여기고 있는 타이거 우즈(미국)는 빼어난 퍼팅 감각을 앞세워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 2개를 곁들이며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리그 별 중 별 누구?

오늘 올스타전... MVP경쟁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이 4일 오후 4시40분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전 경기로 K-리그 역대 득점왕 모인인 ‘황금발’ 최원준과 연이은 올스타의 스페셜 매치도 오후 3시30분부터 열려 팬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1985년 K-리그 득점왕이자 유일한 동남아시아 출신 용병으로 올드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피아프(태국)도 오랜만에 인사를 한다.

중부(대전, 서울, 성남, 수원, 인천, 대구, 전북)와 남부(광주,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제주, 포항)로 나눠 베스트 11과 감독 추천 선수 7명씩 모두 36명이 출전하는 별들의 축제에서 누가 ‘별중의 별’로 MVP에 뽑힐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 취재진이 선정하는 올스타전 MVP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하우엔 바람의 여신 에어컨 한 대, 500만원 상당의 나이키 제품도 제공된다. 올스타 팬 투표에서 최다 득표 선수로 뽑힌 김영광(울산)은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골잡이들에게는 ‘타입 보너스’도 있다. 전 반 20~40분 사이 먼저 골을 넣는 선수에게도 에어컨 한 대를 선물로 준다. 이 때 골이 터지지 않으면 후반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름다운 경주

페덱스컵 우승엔 상금 1,000만달러 기부

‘기부왕’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앞으로 ‘천만 달러의 사나이’로 불리게 될 지도 모른다.

최경주는 3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승 상금 1천만달러가 걸린 페덱스컵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 상금 전액을 자선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페덱스컵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올해 도입한 ‘플레이오프’ 개념의 제도로 시즌 막판 4개 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1위 선수에게 상금 1천만 달러를 준다.

최경주는 “만약 페덱스컵대회에서 1위를

한다면 어땠겠느냐”는 질문에 “불우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면서 “타이거 우즈처럼 내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해 상금 전액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최경주는 상금을 받을 경우 교회에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는 가 하면 초창대회 초청료 등 수입이 생기면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해왔다.

“우즈와 맞대결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함께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압박감이 오히려 즐거울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테니스계 또다른 요정 키릴렌코의 리턴

러시아의 마리아 키릴렌코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라 코스타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벌어진 아쿠아 클래식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세르비아의 옐레나 안코비치에게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키릴렌코가 2-1(6-2, 3-6, 7-5)로 승리했다.

/연필뉴스

이형택, 또 로딕과 4강행 ‘맞짱’

프랑스 베네투에 2대1 역전승 ATP 투어 3주 연속 8강 기염

이형택(세계랭킹 38위·삼성증권)이 총상금 60만 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레그 메이슨 클래식에서 단식 준준결승에 오르며 3주 연속 8강 진출을 이뤘다.

5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리엄 피츠제럴드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3회전에서 프랑스의 줄리앙 베네투(57위)에게 1시간39분 만에 2-1(2-6 6-2 6-3)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라 톱시드의 앤디 로딕(5위·미국)과 2주 연속 4강행 티켓을 다투게 됐다.

로딕은 이날 라텍 스타파넬(63위, 체코)과 서브 에이스 43개(로딕 23개)를 주고 받는 ‘서브 전쟁’을 펼쳤고 2-1로 어렵게 이겼다.

이형택은 지난 주 인디애나폴리스 테니스 챔피언십 준준결승에서 로딕을 앞세운 로딕에게 1-2로 무릎을 꿇는 등 역대 상대전적에서 1승9패로 절대 열세에 있지만 타이브레이크 접전은 물론 볼세터 접전을 벌인 게 각각 5차례에 달해 이번에는 로딕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형택은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상금 1만5천115달러와 투어 포인트 50점을 확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창수, ‘호랑이’ 없는 PGA서 우승 사냥

리노-타호오픈 1R 공동 5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상위 랭커들이 모조리 빠진 ‘그들만의 리그’에서 생애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우승 사냥에 나섰다.

위창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폰트폴프장(파72·7천472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리노-타호오픈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선두 스티브 플래시(미국·63타)에 3타 뒤

진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린 위창수는 우승도 바라볼 수 있는 순위.

더구나 세계랭킹 50위 이내 등 강호들은 모두 같은 기간 열리는 초특급 대회인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에 출전해 이번 대회는 크게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없다.

교포 청년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2언더파 70타로 공동 38위에 그쳤고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54위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 세계

4일(토) ▲PGA 리노 타호 오픈 2R(07:30·SBS스포츠)
 ▲봉황대기 고교야구 개막전(천천고-경동고)(13:00·KBSN Sports)
 ▲한일 여자프로농구 챔피언십(신한은행-조모 썬플라워즈)(14:50·SBS스포츠)
 ▲K리그 올스타전 스페셜매치(15:00·MBC ESPN)
 ▲프로축구 올스타전(16:40·MBC)
 ▲프로야구(SK-삼성)(16:30·KBSN Sports), (LG-두산)(16: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야쿠르트-요미우리)(18:00·MBC ESPN)
 5일(일)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 3R(02:00·SBS스포츠)
 ▲프로야구(SK-삼성)(16:30·KBSN Sports), (LG-두산)(16: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야쿠르트-요미우리)(18:00·MBC ESPN)
 ▲07/08 FA 커뮤니티 실드(첼시-맨체스터 Utd)(23:00·MBC ESPN)
 6일(월)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 FR(02:00·SBS스포츠)